

AFP *Ad Fontes* Progra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AD FONTE
PROGRAM

제6기 AFP

최고지도자
인문학과과정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제 6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인문학은 언어, 문학, 예술 등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이해하고, 인간사회의 제반 현상 및 문제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며, 사물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인문학의 탐구 대상에는 언어·문학·역사·철학 등의 전통적 영역 외에도 오늘날 주목되고 있는 과학, 기술, 경제, 경영, 디자인 등의 새로운 문화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 요소들이 인간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원천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자 여러분들께서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즉각적 효용성이나 물질적 가치성만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추상적 정신적 가치도 인간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하는 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 대한 여러 매체의 보도 내용이 대학별 취업률 비교, SCI 논문 발표 수, 세계대학평가 순위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압박 속에서 사회적 책무를 가진 대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그러나 대학교육이 이러한 기능주의에 압도되어

당장의 '효용성'과 수치 위주의 '업적' 추구를 지상 명령으로 받든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이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 함몰되어 학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끌려간다면, 결국 '인간'과 '인간학'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본'과 '물질'의 형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겉절이'의 얇은 맛이 아닌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의 맛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인 여러분들께서 제6기 AFP에 입학하시면, 18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맞보지 못했던 인류문화의 정수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인문 정신의 안내로 우주와 인간 사회의 깊은 원천과 조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문학이 우리 자신과 세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인문 서적의 향기로운 행간 속에서 느끼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과와의 조우는 여러분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회와 인문학이 소통하고 또한 상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인문학의 향연인 AFP에서 여러분을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변 창 구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개요

교육목표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조정신과 윤리정신, 글로벌 마인드 등 인문학적 지식의 고양을 통하여 최고의 지도자로 발전하도록 한다.

AFP 과정 5대 주안점

- + 역사의식 함양과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 + 문화예술의 이해와 '풍요로운 삶' 모색
- + '삶의 내면'에 대한 철학적 성찰
- +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탐방
-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문화변동 이해

개설과정 목적

인문학이 한국사회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자기스스로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깡쟁'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천더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서양의 대학제도에서는 인문학이 학부교육의 중심이며, 인문학 이후의 전문대학원(의대, 법대, 경영대 등...) 교육의 밑거름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풍요롭고 숭고하게 만들며 그 학문적 추구는 사회적으로 당장 유용하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문학은 가치창출의 원천이다. 인문학은 다음과 같이 인간이 처한 사회의 중요한 요구에 긍정적인 대안 혹은 해답의 단초를 제공한다.

- +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한 비판적 사고
- +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비판적이면서 열린 시각에서의 토의
- + 다른 사람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서 경험한 소중한 유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

주임교수단

- + 주임교수 : 변창구(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 부주임교수 : 배철현(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이재영(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아드 폰테스(Ad Fontes)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지상주의의 그늘 속에서 한때 인문학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는 무관한 비실용적 학문으로 간주되고 외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날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CEO들과 많은 대중들의 관심은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의 필요성 및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삶의 지혜, 통찰력,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우리 사회 각계 최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9월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은 본 과정에 참여한 이전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언론 등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월등한 차별성과 수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제공하는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 사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에너지와 비전,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문대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 6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프로그램

3월 2일(화)	입학식 장소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2층)	
3월 9일(화)	선비정신과 선비문화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 기록문화	한영우(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허성도(서울대 중어중문학과)
3월 16일(화)	족보를 통해 본 한국인의 역사의식 한시를 읽는 즐거움	마일런 하트마넥(서울대 국사학과) 이종목(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월 23일(화)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소설의 흐름	김경옥(소설가/한국예술종합학교) 조남현(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월 30일(화)	부부모임_규장각 탐방 퇴계와 율곡 문명 교류 속 한국건축의 미	금장태(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전봉희(서울대 건축학과)
4월 3일(토)~4일(일)	안동여행 조선유학의 특징	허남진(서울대 철학과)
4월 6일(화)	김홍도와 18세기 동아시아 회화 문명과 종교	장진성(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김종서(서울대 종교학과)
4월 13일(화)	1, 2, 3, 6기 부부합동수업 「삼국지연의」에 나타난 중국인의 정서 천년을 함께 한 명주실의 소리 가야금	서경호(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이지영(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4월 20일(화)	「도덕경」을 통해 본 리더 도연명의 인생과 시	최진석(서강대 철학과) 송용준(서울대 중어중문학과)
4월 27일(화)	동북아 삼국의 역사인식 선사시대의 여성과 남성	송기호(서울대 국사학과) 이준정(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5월 4일(화)	'일본 만들기' 역사 '임진왜란' 과 일본 전국시대	한경구(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박수철(서울대 국사학과)

5월 11일(화)	부부모임 박지원의 「열하일기」 조선시대의 회화	김명호(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안휘준(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5월 13일(목)~16일(일)	중국여행 청제국과 그 유산 중국고전들을 통해 본 중국사상	구범진(서울대 동양사학과) 김월희(서울대 중어중문학과)
5월 18일(화)	비디오 아트와 시각문화 현대사회와 언어	심철웅(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홍기선(서울대 영어영문학과)
5월 25일(화)	4, 5, 6기 부부합동수업_서울대학교 역사쓰기와 역사 만들기 바이올린을 들고 떠나는 세계여행	이인호(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백주영(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
6월 1일(화)	토마스 말로리의 「아서왕의 죽음」 셰익스피어 사극을 통해 본 지도자 상	김현진(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변창구(서울대 인문대학장/영어영문학과)
6월 8일(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프랑스 현대 사상가의 이해 : 푸코의 경우	박종소(서울대 노어노문학과) 오생근(서울대 불어불문학과)
6월 15일(화)	1, 2, 3, 4, 5, 6기 합동수업 신의 첫 질문 : “네가 어디있느냐?”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	배철현(서울대 종교학과) 김남두(서울대 철학과)
6월 22일(화)	「오디세이아」를 통해 본 인간의 자기이해 기말보고서 발표	이태수(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6월 29일(화)	수료식 장소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2층)	

언론에서 본,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길 찾아 떠난 CEO들 “사람 없는 길은 없다라”

서울대 AFP, 중국으로 '인문학 탐방', 자금성·만리장성 등 역사의 현장서 즉석 강연·토의 “경영지식보다 인간을 이해하는 화합의 철학 중요”

“연암 박지원이 200여년 전 청나라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천하를 지배한 중국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문학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紫禁城). 나이 지긋한 학생들 수십 명이 고궁박물관 앞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철현 서울대 중문과 교수의 말에 귀를 쫓종 새웠다.

“여러분은 지금 연암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자금성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연암이 되어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을 찾아보세요.” 교수의 말이 떨어지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영려없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직원을 이끄는 기업의 CEO들이다. 이번 학기 서울대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참여한 40여명의 CEO들은 그동안 강의에서 배운 ‘열하일기’ 속 연암의 눈으로 중국을 새롭게 느껴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8일부터 3박4일간의 중국 탐방에 나섰다.

AFP는 기업 CEO들이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을 체득해 현실 속 위기를 극복하는 창조적 해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개설 됐다. 이른바 ‘인문경영’의 육구를 학문적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5기째인 이 과정은 역사·문화기행 비용을 포함해 수강료가 1,200만 원대이지만 입학 경쟁률이 3대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5기생인 하현회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수많은 직원들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자리에 있다 보니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경영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만나게 된다”며 “역사, 철학 속 리더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 어렵게 나선 만큼 탐방 일정은 빡빡하게 진행됐다. 8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버스로 3시간을 달려 허베이성(河北省) 청더시(承德市)로 이동했다. 옛 지명이 ‘열하’인 이곳에서 이틀간 청 황제가 무더위를 피해 여름을 보냈다는 피서산장과 티벳 불교 사원 등을 둘러본 뒤 만리장성의 일부인 사마대 장성을 거쳐 베이징으로 이동해 자금성과 공자의 묘, 이탈리아 선교사였던 마테오리치의 묘를 방문했다.

빠듯한 일정이지만 동행한 서울대 교수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합동 즉석 강연은 탐방의 백미였다. 사마대를 둘러보던 중 김철현 교수가 “만리장성을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수만명의 장정들의 관심을 돌려 내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배철현 종교학과 교수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수만명의 장정이 동원돼 수십년간 만들어진 점을 보면 같은 맥락의 해석이

가능하겠다”고 덧붙였다. ‘열하’ 탐방에선 장진성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설명으로 “열하에 티벳 불교 사원을 짓고 건물을 배치한 것은 이민족 종교를 배려해 통합을 이루려는 정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내용의 ‘심화’ 학습이 이어졌다.

곳곳에서 즉석 토론도 벌어졌다. 길거리든, 버스안이든, 두 세 명이 모이면 바로 토론장이 됐다. 버스 안에서 장창덕 삼성전자 고문이 “현장에서 보니 지금 중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변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옛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대비가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하자, 앞자리의 배철현 교수가 “중국은 지금 전세계 지식인을 중국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맞받았다.

CEO들은 AFP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점을 첫 손에 꼽는다. 그동안 160여명이 이 과정을 거쳐왔는데, 수료생 절반 이상이 6, 7개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인문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각 분야 교수들을 초청해 공자, 맹자, 니체 등 동서양 철학자들을 섭렵하고 문학작품을 함께 읽기도 한다. 나뉠대로 ‘인문경영’을 시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철우 롯데백화점 사장은 국내 기업 최초로 사내 AFP 과정을 만들어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에 인문학을 가르치는 등 인문학 전파에 열심이다.

중국 탐방 길에 함께 한 CEO들은 “이번 탐방을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태 포스코 사장은 “경영지식보다 인간을 이해해 화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문학의 힘을 새삼 절감한다”면서 “채용 담당자들이 각 대학 1~2학년 인문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주 TG삼보서비스 사장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자는 얘기는 사장이 굳이 안 해도 직원들이 다 안다”며 “내년에는 직원들이 공감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이념을 제시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사원의 액자가 이민족을 배려해 한자뿐만 아니라 티벳어 등 여러 언어로 쓰여진 것을 관심 있게 살피던 조용경 대우엔지니어링 부회장은 “청나라 황제들을 통해 계층과 출신,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을 배웠다”며 “이번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세계의 기대도 결국 인간을 배려한 화합의 리더십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강희경기자 kbstar@hk.co.kr

추천의 글

+ AFP 17_ 김우식 한석에너지(주)/한석RDI/한석수산대표

치열한 삶의 흔적인 인문학을 통해 고결한 인격을 바탕으로 행동과 예절을 올바르게 실천하며, 강인한 의지를 갖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사회에 정도를 구현하는 선비정신과 절충의 리더십을 얻었다.

+ AFP 27_ 윤동한 한국콜마주식회사 대표이사

동서양의 역사를 넘나들며 선조들의 삶과 마주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석학들과 조우할 기회를 얻은 또 다른 세계에로의 즐거운 여행이었다.

+ AFP 37_ 이낙영 SPP조선(주) 회장

크고, 빠르고, 높은 것만을 향해 달려오던 나에게 아름다움, 인간다움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설레임을 안겨주었으며, 인문학을 통한 새로운 나의 경험들은 진솔한 시간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 AFP 47_ 최동주 (주)현대아이파크몰 대표이사 사장

인문학은 단순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였으며, AFP라는 작은 시작은 나에게 힘있는 겸손함과 원천에서 솟구치는 끝없는 아이디어,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깨우침을 가져다주었다.

+ AFP 57_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멀고도 어려운 분야로만 생각했던 인문학이었지만, 이미 내 삶이 인문학적 체험들로 채워져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이 덕분에 사물을 여유있게 보고 마음을 풍부하게 하고 있는 새로운 나를 만났다.



수업 안내

교육기간

2010년 3월 2일(화) ~ 2010년 6월 29일(화) / 총 18주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 10:00 (1일 2강좌)

국내 워크숍(1박 2일) 1회, 국외 워크숍(3박 4일) 1회

교육장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서관 17층 교육장

전화 02-3457-0114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출구, 삼성역 4번출구

버스 좌석: 9414 / 간선 146, 341, 360, 730, 472
자선: 2415, 3411, 3415, 4412, 3219, 3420, 4312, 6411

주차 포스코센터 지하 주차장



문의처

전화 02-880-2570, 2637(인문대학 AFP 사무국)

팩스 02-871-0064

홈페이지 www.snuafp.com

주소 (151-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6동 313호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입학 안내

모집인원	45명 내외
입학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업체 CEO(회장·사장·임원) + 정부 고위공무원 / 부장급 이상 관·검사 / 국회의원 / 장성급 장교 + 교수 / 금융인 / 언론인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 부부동반 지원 가능
이수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 기말보고서(에세이)
원서교부 및 접수	2010년 1월 4일(월) ~ 1월 15일(금)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지원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 증명 사진(반명함판 규격, 150kb 이상의 jpg/png 파일) + 회사 또는 기관(자기) 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파일 형태로 접수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년 1월 21일(목) ~ 2010년 1월 22일(금)
등록기간	2010년 1월 25일(월) ~ 1월 28일(목)(수강료 등은 추후 통지함)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지원서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 모든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이메일 접수 주소 : apply@snuafp.com(AFP 사무국 입학전형 담당자) + 홈페이지 : www.snuafp.com